6·2지방선거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에게 듣는다

"미래가치 산업 육성 '살맛나는 광주' 만들겠다"

-극적인 경선 승리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부 후보 측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였던 네 분께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의한 바 있다.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화합된 모습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야 분열된 민주당의 갈등 해소와 지방선거 승리를 일굴 수 있다.

-이번 경선에서 나타난 광주 민심을 어떻게 보는지.

▲지난 10일 치러진 경선은 위대한 광주시민과 당원들의 승리로 정의할 수 있다. 광주시민과 당원은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원했고 강운태를 선택했다.

위대한 광주시민과 민주당원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광주시장에 당선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과 당원의 선택에 부끄럽지 않은 '역시 강운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 광주시의 발전과 활동에 아쉬움 점이 있다면.

▲광주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미완의 도시다. 그동안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의 유치를 위해 박광태 시장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우리는 더 뛰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키우고,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세계 속의 인권·평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후보가 제시하는 광주의 비전은 무엇인가. 10년 후의 광주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광주의 미래 비전으로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를 모토로 '살맛나는 사회'와 '행복한 시민'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세계 속의 평화공동체,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등 4대 핵심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

10년 뒤 광주는 비로소 시민 모두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광주의 문화와 제도와 상품, 그리고 도시경영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모델이 되는 창조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 당면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지. 임기 4년 동안 중점 추진할 정책은.

▲광주는 경제규모가 7대 도시 중 7위에 이를 정도로 경제·문화적 자립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및 영남, 강자 편중 정책노선으로 지방과 서민, 호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자치공동체로서 참여와 소통의 취약 등 3대 위기에 처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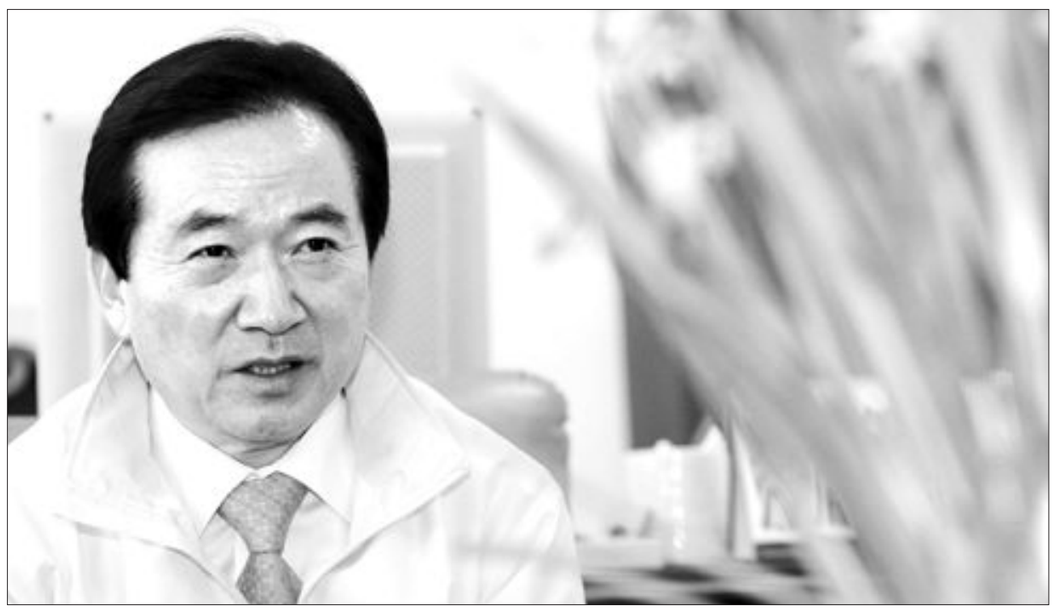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4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경제 규모 중상위권 도약, 5대 주력산업과 미래가치산업의 집중 육성, R&D 특구 개발 및 LED 특화단지 조성, 문화산업 집중 육성 등 20개 핵심공약을 만들어 실천할 계획이다.

-성장과 복지라는'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2014년까지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6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

2014년까지 경제규모 44조원 이상, 1인당 생산액 3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R&D 특구 개발·LED 단지 조성
4년뒤 고용률 60%이상 끌어올릴 터

상생·소통·참여위한 원탁회의 구성
경제·문화·평화·자치공동체 실천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다. 또, 2013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소통은 지방화 시대의 키-워드다. 소통을 위한 방안은.

▲'광주공동체 원탁회의'를 구성해 통합과 상생 그리고 참여와 소통의 지방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이는 주요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협의해 나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다.

매주 한 차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직소민원처리'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생각이다.

개방형 직위를 전면 개방, 참신하고 역량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과 함께 민선 5기 광주시 구성을 꾸려나가겠다. 또한, 각 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 인사 투명성과 자율권을 확보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운태 신상 메모

출생	화순
본관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253번지
신체	키 170㎝, 몸무게 62㎏
학력	광주수창초교·광주 동중·함평 학다리고 수학·대입 검정고시·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주요경력	제 6대 광주광역시장·제47대 농림수산부장관·제62대 내무부장관·제16,18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가족	부인 이덕희씨와 2남
재산	18억9천만원 (부동산:11억4천만원 동산:7억5천만원)
납세	2004~2009년까지 1천458만원 (소득세 940만8천원, 종부세 517만2천원)
종교	기독교
취미	등산
좌우명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
애창곡	찔레꽃
쉴 때 가족들과 하는 일	책·대화
아내에게 주로 하는 말	당신이 최고야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말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좋아하는 연예인	안성기, 김혜자
좋아하는 음식	청국장
좋아하는 여행지	지리산 등 주요 명산
가장 아끼는 소장품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편지
별명	작은거인
저서 혹은 논문	'똑똑한 정부 빛나는 대한민국', '내일을 위한 준비', '미완의 광주, 창조의 중심도시로'
존경하는 인물	광개토대왕, 장보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주량/흡연	소주 반 병·담배 안 핌
홈페이지	http : //www.cleank21.or.kr
이메일 주소	cleank21@hanmail.net

재래시장 살리고 자영업 등 지원 확대

■ 무엇을 할 것인가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시급한 민생현안부터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서민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권익은 물론 노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광주지역 5개구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동구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 엔진'으로 만들어 나가 과거의 지위와 명성을 잇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구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를 체육·스포츠 중심 센터로 발돋움 시키고, 서창동 일원을 관광레저타운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북구는 쾌적한 도시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말바우 시장을 현대화하고, 광주 역세권 개발, 무등경기장 야구타운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광주의 미래 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첨단과학과 생명농업이 함께하는 광주의 보고, 전원형 도시 모델로 가꾸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남구는 교육·문화특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송암산단을 문화산단으로 개발하고 세계김치연구소를 건립, 음식과 맛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창설, 5·18묘역 성역화

■ 무엇을 해 왔나

25년의 공직생활에서 순천시장과 광주시장, 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 등을 지냈다.

광주광역시장(1994~95) 재직시에는 문화와 첨단산업을 양축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와 '김치축제'를 창설했다. 삼성전자와 아남반도체, LG 등 대기업 유치에도 힘을 썼다.

'5·18묘역 성역화 사업'을 착수했고 광주시청에 '5·18민주화운동 사료실'을 설치하는 등 '5월 광주'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1995년 5월17일 역대 광주시장으로는 처음으로 5월단체의 초청으로 추도사를 한 바 있다.

농림수산부장관(1995~96) 때는 수출 농업의 길을 개척하고, 쌀 수급상황이 어려운 속에서 사상 최대의 풍년을 이룩하기도 했다.

내무부장관(1997) 재직시에는 지방자치의 착근을 다지며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 제도 도입의 단초를 마련, 97년 수평적 정권교체와 공명선거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관계부처 장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민주당 복당 후에는 정통야당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5+2 광역경제권의 허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부자감세 철회, 4대강 백지화, 재정건전성 강화 등 '7대 경제 과제'를 제시해 나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왔다.